

인스머스의 그림자

The Shadow Over Innsmouth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Shadow Over Innsmouth" (Visionary Publishing 1936)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3181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포 소설

무너져가는 건물들과 악취에 저주받은 마을, 인스머스 위에는 형언할 수 없는 괴기함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듯했다.

1927년에서 1928년 사이의 겨울, 연방 정부 관리들은 매사추세츠의 오래된 항구 도시 인스머스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을 비밀리에 조사했다. 대중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월이었다. 당시 인스머스에서는 대대적인 급습과 체포 작전이 펼쳐졌고, 뒤이어 버려진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수많은 가옥이 철거되었다. 벌레가 파먹어 무너져가는 그 빈집들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갖춘 상태에서 폭약으로 날려 보내거나 의도적으로 불태워졌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저 금주법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충돌 중 하나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예리한 뉴스 추종자들은 의구심을 품었다. 체포된 인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체포 과정에 투입된 병력 또한 이례적으로 거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로들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재판이 열렸다는 소식도,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밝혀진 적도 없었다. 체포된 이들이 이후 전국의 일반 교도소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도 전혀 없었다. 전염병 때문이라거나 수용소에 가두었다는 모호한 말들이 떠돌았고, 나중에는 해군이나 군 교도소로 분산 수용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무엇도 확실한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수많은 자유주의 단체의 항의가 이어졌으나, 그때마다 긴밀한 비밀 회담이 열렸고 단체의 대표들은 특정 수용소나 교도소를 둘러보는 시찰에 동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들 단체는 놀라울 정도로 수동적이고 침묵을 지키는 태도로 변했다. 언론인들을 통제하기는 더 어려웠으나, 결국 그들 역시 대체로 정부에 협조하는 듯 보였다. 오직 단 한 곳의 신문만이 그 사실을 언급했다. 평소 자극적인 보도 행태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던 타블로이드 신문이었다. 그 신문은 데블 리프 너머 해저 심연을 향해 어뢰를 발사하는 심해 잠수함에 대해 보도했다. 선원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연히 입수한 정보라는 그 기사는, 사실 상당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검고 낮은 암초인 데블 리프가 인스머스 항구에서 무려 1.5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일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는 금기를 깨뜨리려 한다. 인스머스를 습격한 공포에 질린 약탈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조금이라도 암시한다 한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해악이라곤 혐오감에 의한 충격뿐일 것이라 확신한다. 이 사건에 관련한 나의 경험은 그 어떤 비전문가보다도 깊고 밀접했다. 나는 그곳에서 얻은 인상들 때문에, 아직은 차마 결단하지 못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1927년 7월 16일 이른 새벽, 인스머스를 미친 듯이 도망쳐 나온 이는 바로 나였다. 정부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며 공포에 질려 울부짚었던 나의 호소 덕분에, 세상에 알려진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황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침묵을 지킬 용의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도 식어버

린 옛이야기가 되었기에, 나는 묘한 갈망을 느낀다. 죽음과 신성모독적인 기괴함이 깃든, 불길한 소문과 사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항구 도시에서 겪었던 그 몇 시간의 공포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싶다.

인스머스라는 곳은 그곳을 처음이자, 지금까지로서는 마지막으로 보게 된 바로 전날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을 여행 중이었다. 유적지를 둘러보고, 골동품을 찾아다니며, 가문의 계보를 쫓는 여정이었다. 원래 계획은 고풍스러운 뉴버리포트에서 곧장 아컴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곳이 바로 어머니 쪽 가문의 발원지였기 때문이다. 차는 없었기에 기차와 전차, 그리고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했는데, 언제나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경로만을 찾아다녔다.

뉴버리포트 사람들은 아컴으로 가려면 증기열차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 매표소에서 비싼 요금을 보고 망설이고 나서야 비로소 인스머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매표소의 건장하고 영민해 보이는 직원은 말투로 보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듯했다. 그는 경비를 아끼려는 나의 노력에 공감하는 눈치였고, 그동안 만난 다른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던 길을 일러주었다.

“그 낡은 버스를 탈 수도 있긴 할 겁니다.” 그가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 근처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인스머스를 거쳐 가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버스를 싫어합니다. 인스머스 사람인 조 사전트가 운영하는데, 여기서나 아컴

에서나 손님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해먼드 약국 앞 광장에서 출발합니다. 덜 쾅거리는 꼴이 아주 형편없는 고물차 같더군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자에 잠긴 인스머스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들었다. 일반적인 지도에 표시되지 않거나 최근 가이드북에도 실리지 않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내 흥미를 끌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직원이 암시하듯 내뱉는 옛 방식의 말투는 내 안의 호기심을 진정으로 자극했다. 그래서 나는 직원에게 그 마을에 대해 좀 더 말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자신이 하는 말보다 한층 우월하다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인스머스요? 글썄요, 매녹셋 강 어귀에 있는 좀 기묘한 마을이죠. 1812년 전쟁 전만 해도 거의 도시나 다름없었고 꽤 번듯한 항구였지만, 지난 백 년 사이에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철도도 없어요. B. & M. 철도가 이곳을 지나지 않았고, 롤리에서 이어지던 지선도 오래전에 폐선되었거든요."

"사람보다 빈집이 더 많은 것 같더군요. 어업이나 바닷가재 잡이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사업도 없고요. 다들 물건을 팔려면 이곳이 아니라 아컴이나 입스위치로 가야 하죠. 예전에는 공장도 꽤 많았지만, 이제는 아주 가끔씩만 돌아가는 금 정련소 하나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련소는 한때 꽤 큰 규모였습니다. 소유주인 마시 영감은 크로 이소스 왕보다 더 부유할 겁니다. 하지만 참 괴상한 노인이지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질 않거든요. 노년에 피부병이나 기형이 생겨서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지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일군 오베드 마시 선장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의 어머니는 외국인이었던 모양인데, 남태평양 섬 출신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그래서 50년 전 그가 입스위치 여자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난리를 쳤었지요. 인스머스 사람들에게는 늘 그런 식입니다. 이곳과 이 근방 사람들도 자기 몸에 인스머스의 피가 흐른다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마시의 자식이나 손주들은 아직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여기서 그들을 가리켜 알려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큰애들은 최근 들어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노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대체 왜 다들 인스머스를 그렇게 싫어하느냐고요? 글썄요, 젊은이. 이 근방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입을 떼기까지 꽤 걸리지만, 일단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르거든요. 아마 지난 백 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인스머스에 대해 떠들어왔을 겁니다. 대부분은 은밀한 속삭임이었겠지만 말이지요. 내가 보기엔 그들이 무엇보다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더군요. 어떤 이야기들은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옛날 마시 선장이 악마와 거래를 해서 지옥의 꼬마 악마들을 인스머스로 불러들였다는니, 아니면 1845년쯤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부두 근처의 어느 장소에서 악마를 숭배하며 꿈

찍한 제사를 지낸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난 버몬트주 팬턴 출신이라, 그런 식의 이야기는 도무지 믿음이 안 갑니다."

"하지만 해안가 앞바다에 있는 그 검은 암초에 대해 노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데블 리프라고 부르지요. 그 암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면 위로 제법 높이 솟아 있고, 물에 잠길 때도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섬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지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가끔 그 암초 위에서 악마 군단이 통째로 목격되곤 한답니다. 악마들은 암초 위에 널브러져 있거나, 꼭대기 근처에 있는 동굴 속을 들락날락하며 움직인다더군요. 암초는 해안에서 1마일 넘게 떨어진, 울퉁불퉁하고 거친 암석 덩어리입니다. 항해업이 번창하던 시절, 선원들은 이 암초를 피하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지요."

"그 말은 인스머스 출신이 아닌 선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노선장 마시에게 품었던 불만 중 하나는, 조수가 맞을 때면 그가 밤중에 가끔 그 암초에 상륙한다는 소문이었죠. 어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암초의 형상이 워낙 기이하기도 했고, 그가 해적의 보물을 찾아 헤매다 정말로 찾아냈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선장이 악마와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데블 리프의 악명을 만든 건 암초 자체가 아니라 선장 본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1846년에 닥친 대역병이 돌기 전의 일입니다. 당시 인스머스 주민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끝내 밝

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선박을 통해 중국이나 다른 먼 곳에서 유입된 외래 질병이었을 겁니다. 상황은 분명 끔찍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마을 밖으로는 결코 새어 나가지 않았을 법한 온갖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그 역병은 마을을 처참하게 망가 뜨려 놓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예전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는 사람이 많아 봐야 300명에서 400명 남짓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그저 인종적 편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인스머스 사람들을 혐오하며, 그들의 마을에는 가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당신은 말투를 보니 서부 출신인 것 같지만,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뉴잉글랜드의 배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태평양, 그리고 그 외의 온갖 기묘한 항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때때로 얼마나 기괴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는지도요. 중국인 아내를 데리고 귀향한 세일럼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테고, 케이프 코드 근처 어딘가에 여전히 피지제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인스머스 사람들 뒤에는 분명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곳은 원래부터 늪지대와 개울 때문에 육지 다른 곳들과 단절된 곳이었고,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꽤 분명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마시 선장이 배 세 척을 모두 운용하던 시절, 분명 기괴한 표본들을 집으로 가져왔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요즘 인스머스 사람들에게서는 분명 기묘한 기질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만약 당신이 사전트의 버스를 탄다면 그도 조금은 눈에 떨 겁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가 기묘하게 좁고 코는 납작하며, 눈은 툭 튀어나와서 도무지 감기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부도 어딘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거칠고 각질이 일어난 데다, 목 옆부분은 온통 주글주글하거나 주름져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아주 젊은 나이에 빠져버리곤 하죠.

나이가 들수록 상태는 더 심해집니다. 사실, 그런 부류 중에서 아주 늙은 노인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니까요. 동물들도 그들을 싫어합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에는 말들이 그들을 보고 유독 말썽을 피우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정부 교육 관계자나 인구 조사관들도 그곳에선 애를 먹곤 하죠. 인스머스 근처에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낯선 이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사업가나 정부 관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신이 나가서 지금은 덴버스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람에 대한 소문도 떠돕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 끔찍한 공포가 닥쳤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이라면 밤에는 절대 가지 않겠어요. 난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낮에 다녀오는 것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비록 이 근처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지 말라고 충고하겠지

만 말이에요. 만약 그저 구경이나 좀 하고 옛날 유물 같은 걸 찾는 게 목적이라면, 인스머스는 당신에게 꽤 흥미로운 곳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의 일부를 나는 뉴버리포트 공공 도서관에서 인스머스에 관한 자료를 찾는 데 보냈다. 도서관 서가에 꽂힌 에섹스 카운티 역사서들은 인스머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마을이 1643년에 세워졌으며, 독립 전쟁 이전에는 조선업으로 유명했고, 19세기 초에는 해상 무역의 번영을 누렸으며, 이후에는 마녹셋 강을 동력원으로 삼는 작은 공업 중심지가 되었다는 식의 건조한 기록뿐이었다. 1846년에 발생했던 전염병과 폭동에 대해서는 아주 드문드문 다루어져 있었는데, 마치 그 사건들이 이 나라의 수치라도 되는 양 애써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쇠퇴를 암시하는 언급은 드물었으나, 후반부 기록이 지닌 의미만큼은 명백했다. 남북 전쟁 이후 모든 산업 활동은 마시 정련 회사로 국한되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업을 제외하면, 금괴를 판매하는 일만이 남은 주요 상업 활동의 전부였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인스머스와 막연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기묘한 장신구에 대한 짧은 언급이었다. 이 장신구는 인근 지역 사회에 상당한 인상을 남긴 듯했다. 아킴에 있는 미스카토닉 대학교 박물관과 뉴버리포트 역사 협회의 전시실에도 관련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그 지역의 표본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유물은 티아라로 제작된 것

이 분명해 보이는, 크고 기괴한 비율을 가진 물건이라고 전해지고 있었다.

사서가 나에게 소개장을 건네주었다. 수신인은 근처에 사는 학회 큐레이터, 안나 틸튼 양이었다. 시간이 아주 늦은 것은 아니었기에, 그 나이 지긋한 노부인은 친절하게도 나를 안내하여 굳게 닫힌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학회의 소장품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것들이었으나, 지금 내 기분으로는 구석진 찬장 안에서 전등 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 기괴한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라색 벨벳 쿠션 위에 놓인 그 이질적이고도 화려한 환상. 그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광채를 마주한 순간, 나는 미처 숨을 고르지 못하고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아름다움에 유달리 민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눈을 떼지 못할수록 그 물건은 나를 더욱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 매혹 속에는 무엇이랴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기묘하고도 불길한 요소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불안함의 정체가 이 예술품이 지닌 기이한 이계(異界)의 성질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문양들은 모두 아득한 비밀과 시공간 너머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연을 암시하고 있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수중 생물의 부조들은 기괴함을 넘어 불길하기까지 했다. 부조들 사이에는 혐오스러운 기괴함과 악의를 품은 전설 속 괴물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지극히 원시적이었으며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태고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저 신성모독적인 물고기 개구리들의 굴곡진 몸짓 하나 하나마다, 미지의 비인간적인 악이 지닌 궁극의 정수가 넘쳐흐르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틸튼 양이 들려준 티아라의 내력은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기묘할 만큼 단조롭고 건조했다. 1873년, 인스머스의 한 취객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가게에 이 티아라를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저당 잡혔다고 한다. 그 취객은 저당을 잡힌 직후, 싸움 끝에 목숨을 잃었다.

틸튼 양은 그것이 과거 오베드 마시 선장이 발견한 이국적인 해적의 보물 중 일부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마시 가문 사람들이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사겠다고 끈질기게 제안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더욱 확신으로 굳어졌다. 마시 가문은 팔지 않겠다는 역사 협회의 확고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종용하고 있었다.

그 부인에게서 나를 건물 밖으로 안내하며 덧붙이기를, 인스머스에 떠도는 악마 숭배 소문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기묘한 비밀 교단이 세력을 키우며 기존의 정통 교회들을 모두 집어삼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의 명칭은 '다곤 비밀교단'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타락하고 기괴한 이교도적 신앙이었으며, 한 세기 전 인스머스의 어장이 텅 비어 가던 시절 동양에서 건너온 것이었다. 하지만 어획량이 갑자기 풍부해지고 그 호황이 영구적으로 이어지자, 순박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 신앙이 뿌리내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머지않아 그 교단은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경건한 틸튼 양에게 이 모든 사실은 쇠락하고 황량한 그 고대 마을을 피해야 할 아주 훌륭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새로운 자극제가 될 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Y' 여관의 작은 방에 누운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II

내가 인스머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기괴하고 불쾌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마을의 풍경은 마치 죽어가는 생물의 사체처럼 황폐했고, 그곳을 지배하는 공기는 썩은 생선 비린내와 눅눅한 해조류의 악취로 가득했다.

마을의 거리는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비좁은 골목마다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길가에 늘어선 건물들은 납고 뒤틀린 채로 서로를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었고, 그 창문들은 마치 눈이 먼 괴물의 눈동자처럼 나를 응시하는 듯했다. 무엇보다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외모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괴했다. 피부는 비늘처럼 번들거렸고,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돌출되어 있었다. 목은 짧고 뭉툭했으며, 얼굴의 이목구비는 마치 물속에서 오랫동안 불어 터진 것처럼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 없이 속삭이거나, 혹은 아무런 표정 없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지나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미끈거리는 생명체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내게 닿을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하고도 이질적인 시선뿐이었다.

나는 서둘러 숙소를 찾아 움직였다. 이 마을의 공기, 이 마을의 풍경, 그리고 이 마을의 사람들이 내뿜는 그 알 수 없는 불쾌함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기괴한 세계의 심장부로 점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기 직전,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오래된 마켓 광장에 있는 해먼드 약국 앞에 서서 인스머스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잠시 후, 낮고 지저분한 회색빛을 띤 작은 버스 한 대가 스테이트 거리를 따라 덜컹거리며 내려왔다. 버스는 방향을 틀더니 내 옆 인도에 멈춰 섰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버스가 내가 기다리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앞 유리에 붙은, 알아보기조차 힘든 "아컴-인스머스-뉴버리포트"라는 글자가 내 짐작이 맞았음을 곧 증명해 주었다.

승객은 단 세 명뿐이었다. 모두 어둡고 험클어진 모습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은 채 어딘가 젊은 기색이 남아 있는 사내들이었다. 차가 멈춰 서자 그들은 서투른 걸음걸이로 비틀거리며 내리더니, 마치 무언가

를 숨기려는 듯 말없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운전사 또한 차에서 내렸다. 나는 저들이 대표원이 말했던 조 사전트 일행 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채 살피기도 전부터, 억누를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강렬한 혐오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그는 키가 6피트에 약간 못 미칠 만큼 컸으나, 마르고 어깨가 굽은 사내였다. 남루한 푸른색 평상복 차림에 끝이 해진 회색 골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이는 서른다섯 살쯤 되어 보였지만, 멍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목 옆면에 깊게 파인 기묘한 주름 때문에 실제보다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좁았고, 눈은 툭 튀어나온 채 물기가 어린 푸른빛을 띠었는데 결코 깜빡이지 않는 듯했다. 코는 납작했고 이마와 턱은 뒤로 물러나 있었으며, 귀는 유독 발달하지 못한 형태였다. 그가 버스를 향해 걸어올 때, 나는 그의 걸음걸이가 유독 비틀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또한 그의 발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하다는 것도 보았다. 발을 살피면 살필수록, 대체 저렇게 큰 발에 맞는 신발을 어떻게 구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자의 몸에서 풍기는 특유의 기름진 느낌 때문에 불쾌감은 더욱 커졌다. 그는 분명 어시장 근처를 배회하거나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었는데, 그 때문에 어시장 특유의 악취를 온몸에 묻히고 다녔다. 도대체 그자의 몸에 어떤 이질적인 피가 흐르고 있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버스에 다른 승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웬지 모르게 이 운전사와 단둘이 버스를 타고 가는 상황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나는 불안감을 억누르고 남자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그에게 1달러 지폐를 건네며 "인스머스"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침내 낱아빠진 자동차가 덜컥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일으키며, 차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늘어선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날씨는 따뜻하고 화창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수록 모래와 사초, 그리고 키 작은 관목들이 뒤섞인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와 플럼 섬의 모래 해안선이 보였다. 좁은 길은 롤리와 입스위치로 향하는 큰 도로에서 갈라져 나왔고, 우리는 곧 해변에 아주 가까이 다다랐다.

마침내 플럼 섬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왼쪽으로는 광활한 대서양이 펼쳐졌다. 버스가 좁은 길을 따라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도로가 하늘과 맞닿은 저 멀리 외로운 능선을 바라보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마치 버스가 이 가파른 경사를 따라 계속 올라가, 멀쩡한 땅을 완전히 뒤로한 채 미지의 신비와 기괴한 하늘의 영역 속으로 녹아들어 버릴 것만 같았다. 바다 내음조차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고, 침묵을 지키는 운전사의 굵은 등과 딱딱하게 굳은 뒷모습, 그리고 좁은 머리는 갈수록 혐오스러워졌다. 그를 쳐다보던 나는 그의 뒷머리가 얼굴만큼이나 거의 머리카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회색빛의 거친 피부 위에는 누런 머리카락 몇 가닥만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언덕 정상에 올라서자 눈앞에 펼쳐진 계곡이 보였다. 그곳은 맨유셋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으로, 킹스포트 헤드까지 길게 이어진 절벽의 북쪽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발아래 펼쳐진 가까운 풍경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드디어 온갖 소문과 그림자에 싸인 인스머스와 마주했다는 사실을.

마을은 넓게 퍼져 있었고 건물들은 뻣뻣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생동감은 불길할 정도로 결여되어 있었다. 처마가 내려앉은 갬브럴 지붕과 뾰족한 박공들이 거대하게 뒤엉킨 모습은, 마치 벌레가 파먹어 들어가는 부패의 형상을 불쾌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내리막길을 따라 마을로 다가갈수록,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지붕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다. 내륙 쪽으로 길게 뻗은 버려진 철길은 녹슬고 풀이 무성했으며, 전선이 끊겨 나간 전신주들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해안가 곳곳에는 부두의 잔해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끝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부두가 가장 심하게 부식된 듯 보였다. 멀리 바다 너머로는 만조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간신히 솟아오른 길고 검은 선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기묘하고 잠재적인 악의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것이 분명 테블 리프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곳을 바라보자, 끔찍한 거부감 너머로 무언가 은밀하고 기묘하게 손짓하는 듯한 감

각이 더해졌다. 이상하게도, 나는 처음에 느꼈던 혐오감보다 이 기묘한 이질감이 훨씬 더 마음을 어지럽혔다.

버스가 낮은 지대로 내려가자,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공기를 뚫고 폭포의 일정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페인트칠도 하지 않은 채 기울어진 집들이 길 양옆으로 뺑뺑하게 들어섰다. 방금 지나온 마을보다 훨씬 도시적인 모습이었다. 눈앞의 풍경은 어느덧 좁은 거리의 모습으로 좁혀졌고, 곳곳에서는 예전에 깔려 있었을 법한 자갈길과 벽돌 보도의 흔적이 보였다. 집들은 모두 비어 있는 듯했고, 무너진 굴뚝과 지하실 벽만 덩그러니 남은 빈터에서는 건물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짐작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위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불쾌한 인상을 하나 더 마주해야만 했다. 버스가 멈춰 선 곳은 일종의 광장이자 교차로였다. 양옆으로는 교회들이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는 원형 녹지가 있었으나 이제는 초라하게 망가진 잔해만 남아 있었다. 나는 정면 교차로 오른쪽에 자리 잡은 커다란 기둥 홀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하얗게 빛났을 건물 외벽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 칠이 벗겨져 있었고, 박공벽에 걸린 검은색과 금색의 간판은 너무나 색이 바래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다곤 비밀교단"이라는 글자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교회 지하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검은 어둠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드러났다. 내가 그곳을 응시하던 중, 어떤 물체가 그 어두운 공간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혹은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 찰나의 형상

은 내 뇌리에 악몽 같은 잔상을 각인시켰다. 그것은 분석을 통해 그 어떤 악몽 같은 특징도 찾아낼 수 없었기에, 오히려 더욱 미칠 듯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마을의 밀집된 구역에 들어선 이후, 운전을 제외하고 내가 처음으로 마주한 생명체였다. 만약 내 기분이 조금이라도 더 차분했더라면, 그 모습에서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깨달았듯이, 그것은 분명 목사였다. 다곤 비밀교단이 지역 교회의 의식을 개편한 이후 도입되었을 법한 기이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내 무의식에 처음 포착되어 기괴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그가 쓰고 있던 높은 티아라였을 것이다. 그것은 전날 밤 틸튼 양이 내게 보여주었던 것과 거의 똑같이 생긴 물건이었다. 그 티아라는 내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아래에 가려진 불분명한 얼굴과 로브를 걸친 채 비틀거리며 걷는 형체에 이름 붙일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제 보도 위로 혐오스러운 인상의 젊은이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 걷는 이들도 있었고, 두세 명씩 말없이 뭉쳐 다니는 무리도 있었다. 허물어져 가는 집들의 저층부에는 때때로 낡은 간판을 내건 작은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덜컹거리며 길을 따라가는 동안 주차된 트럭 한두 대도 눈에 들어왔다. 폭포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이윽고 앞쪽으로 꽤 깊은 강 협곡이 나타났는데, 그 위로는 넓은 철제 난간이 달린 고가도로 교량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커다란 광장이 펼쳐졌다. 우리는 강 건너편의 커다란 반원형 광장으로 들어서서, 오른쪽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는 노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채 돛형 지붕을 얹은 높은 건물이 서 있었고, 반쯤 지워진 간판에는 이곳이 길 먼 하우스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곧장 초라한 호텔 로비로 들어가 짐가방을 맡겼다. 눈에 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내가 이른바 '인스머스 특유의 외모'라고 부르게 된 기괴한 인상을 풍기지 않는 노인이었다. 나는 그 노인에게 나를 괴롭히던 질문들을 던지지 않기 위해 마음먹었다. 이 호텔에서라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버스가 이미 떠나버린 광장으로 걸어 나가, 그 풍경을 세밀하고도 신중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나는 인스머스 토박이가 아닐 법한 사람들이 일하는 체인 식료품점에서 첫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곳에는 열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혼자서 점원을 맡고 있었다. 소년은 생기가 넘치고 상냥해서, 기분 좋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소년은 유난히 대화에 의욕적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가 이곳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마을 특유의 비린내와 눈치를 살피며 음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었다. 소년의 가족은 그가 인스머스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체인 본사에서 그를 이곳으로 발령 낸 데다 소년 자신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인스머스에는 공공 도서관도, 상공회의소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길을 찾는 것 정도는 아마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내가 들어선 거리는 페더럴가였다. 그 거리의 서쪽에는 브로드, 워싱턴, 라파예트, 아담스 같은 유서 깊고 아름다운 주택가들이 펼쳐져 있었고, 동쪽으로는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빈민가가 이어졌다.

그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어떤 장소들은 거의 금기된 구역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마시 정유 공장 근처나 여전히 사용 중인 교회들 주변, 혹은 뉴 처치 그린에 있는 기둥 장식의 다곤 비밀교단 홀 근처에서는 결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그 교회들은 무척 기묘했다. 각 교단으로부터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었으며, 의식이나 성직자들의 예배 또한 기괴하기 짝이 없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인스머스 사람들에게 대해서라면, 그 소년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들의 외양, 특히 결코 감기는 법 없이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 눈동자는 확실히 충격적이었으며, 목소리 또한 역겨웠다. 밤마다 그들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듣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특히 일 년에 두 번,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열리는 주요 축제나 부흥회 기간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물을 무척 좋아해서 강과 항구 어디에서든 수영을 즐겼다. 데블 리프까지 수영 경주를 하는 일은 매우 흔한 풍경이었으며, 눈에 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된 운동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수영 실력이 뛰어난 듯 보였다.

정보원에 따르면, 그곳에 대해 현지인들에게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입을 열 유일한 사람은 마을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구빈

원에 사는 노인이었다. 그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으나 아주 고령이었고, 주로 마을을 배회하거나 소방서 근처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자독 앨런이라는 이름의 이 백발 노인은 아흔여섯 살이었으며, 마을의 주정뱅이인 데다 정신도 약간 나간 상태였다. 그는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기이하고 은밀한 자였다. 맨정신일 때는 낯선 이와는 결코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독주를 권하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그는 속삭이듯 털어놓는 놀라운 기억의 파편들을 아낌없이 내놓곤 했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온통 미친 소리뿐이었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경이와 공포에 대해 불완전한 암시만을 던질 뿐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의 뒤뜰린 상상력 외에는 달리 출처를 찾을 길이 없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낯선 이와 술을 마시며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목격되는 것 또한 항상 안전한 일은 아니었다. 아마도 마을에 떠도는 가장 광기 어린 소문과 망상들은 대개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리라.

마시 가문은 마을의 다른 세 명문가, 즉 웨이트 가문, 길먼 가문, 엘리엇 가문과 더불어 모두 매우 은둔적인 생활을 했다. 그들은 워싱턴 거리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저택들에 거주했는데, 그중 몇몇 집은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외모를 가진 친척들을 몰래 숨겨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친척들은 이미 사망했다고 보고되어 기록까지 남겨진 이들이었다.

그 청년은 거리 표지판 대부분이 쓰러져 있다며 내게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는 마을의 주요 지형지물을 거칠지만 상세하고 정성스럽게 그려낸 지도를 내게 건네주었다. 잠시 지도를 살펴본 나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거둬 감사를 표하고는 지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렇게 나는 인스머스의 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목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반쯤 낮이 나간 상태였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인 탐색이었다. 다리를 건너 하류 폭포의 굉음이 들리는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중, 나는 마시 정련소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공장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정련소는 다리와 여러 길이 만나는 지점 근처, 가파른 강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교차로는 인스머스의 초기 시가지 중심지였던 곳으로 보였는데, 아마 독립 전쟁 이후 지금의 타운 스퀘어로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밀려난 듯했다.

메인 스트리트 다리를 건너 협곡을 다시 지나자, 웬지 모를 오싹함이 느껴질 정도로 텅 빈 적막한 구역이 나타났다. 무너져 내릴 듯 웅기종기 모여 있는 박공지붕들이 들쭉날쭉하고 기괴한 하늘의 윤곽을 만들고 있었고, 그 위로 머리가 잘려 나간 듯한 고색창연한 교회의 기괴한 첨탑이 솟아 있었다.

피시 스트리트 역시 메인 스트리트만큼이나 한산했다. 다만 그곳에는 여전히 상태가 아주 양호한 벽돌과 돌로 된 창고들이 즐비하다는 점이 달랐다. 워터 스트리트도 거의 그와 비슷했으나, 부두가 있던 자리마다 바다를 향해 커다란 틈이 벌어져 있다는 점이 차이였다. 멀리 방파제에 흩어져 있는 어부들을 제외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항구의 조수가 찰랑거리는 소리와 마누셋 강의 폭포가 울부짖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마틴 가에 다다랐다. 그러고는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린 광장 북쪽의 페더럴 스트리트를 무사히 건넜다. 이어 브로드, 워싱턴, 라파예트, 애덤스 거리가 이어지는 북쪽의 퇴락한 귀족 거리에 들어섰다. 워싱턴 스트리트를 따라 강 쪽으로 향하자, 한때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구역이 눈앞에 나타났다. 앞쪽에는 폐허가 된 공장 건물이 보였고, 오른쪽 협곡 너머로는 오래된 기차역의 흔적과 지붕이 덮인 철도교의 잔해가 보였다.

눈앞에 놓인 불안정한 다리에는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다리를 건너 남쪽 기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시금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생물들이 흐느적거리며 나를 향해 수수께끼 같은 시선을 던졌고, 그보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들도 차갑고도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나를 살폈다. 인스머스는 빠르게 건널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불길한 버스가 출발하기 전, 아직 시간이 남은 틈을 타 아컴으로 데려다 줄 탈것을 구하고자 페인 가를 지나 광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왼쪽으로 허물어져 가는 소방서가 보였다. 그 앞 벤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붉은 얼굴에 덩수룩한 수염, 그리고 초점 없는 눈을 한 그 노인은 덩수룩하지만 딱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소방관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노인이 바로 자독 앨런임이 틀림없었다. 옛 인스머스의 모습과 그 그림자에 대해 소름 끼치고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늘어놓던, 술에 절어 사는 반쯤 미친 아흔 살 먹은 노인 말이다.

III

그것은 1927년 10월 11일, 뉴버리포트에서 출발한 배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그 배의 일등 항해사로서, 인스머스로 향하는 항로를 맡고 있었다.

그날의 날씨는 평범했다. 하지만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시야를 가렸고, 파도는 불길한 기운을 머금은 채 배를 흔들었다. 나는 항해 일지에 그날의 기상 상태와 해류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배가 인스머스 근처의 데블 리프를 지날 무렵, 우리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안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형체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생물 같기도 했고, 거대한 바위 같기도 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깊은 것들'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저 환각이라며 애써 외면했다.

나는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선장은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으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배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배의 선체를 긁는 듯한 소리였고, 동시에 물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스머스의 해안선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등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다곤 비밀교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노인은 그저 거칠고 두서없으며 믿기 힘든 전설들을 암시할 뿐이라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 게다가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마을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본 노인, 배와 공장이 들어서던 초기 시절까지 기억을 간직한 이 노인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이성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호기심은 이성과 신중함을 넘어 타올랐다. 나는 젊은 날의 자만심에 빠져, 위스키의 힘을 빌려 노인에게서 쏟아져 나올 혼란스럽고 과장된 이야기들 사이에서 실재하는 역사의 핵심을 내가 직접 가려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엘리엇 가의 광장 바로 옆, 지저분한 잡화점 뒷방에서는 그런 술을 1쿼트들이 병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물론 값은 결코 싸지 않았다.

광장으로 다시 들어서며 나는 운이 따랐음을 깨달았다. 페인 가를 지나 길면 하우스 모퉁이를 돌아 나갈 때,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옷이 너털너털한 노인, 바로 자독 앨런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계획대로 새로 산 술병을 흔들며 그의 주의를 끌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한적한 곳을 찾아 웨이트 가로 접어들자, 노인은 무언가 아쉬운 듯 뒤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다. 메인 가에 닿기도 전에 뒤쪽에서 "이보시오, 선생!" 하는 희미하고 썩썩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곧 노인이 따라잡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는 내가 건넌 쿼트 병의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기 시작했다.

워터 스트리트로 향하며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방에는 황량함이 가득했고, 기괴하게 기울어진 폐허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나는 슬쩍 떠보며 정보를 캐내려 했으나, 노인의 입은 내 예상만큼 쉽게 열리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무너져가는 벽돌 담장 사이로 바다를 향해 난 풀썩 길이 보였다. 흙과 석조로 이루어진 부두가 잡초를 머금은 채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물가 근처에는 이끼 낀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어 잠시 앉아 쉬기에 적당해 보였다. 북쪽에는 폐허가 된 창고가 자리 잡고 있어, 이곳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은밀한 장소였다.

아침형 8시 버스를 타려면 대화할 시간이 네 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나는 내 소박한 점심을 먹으며, 저 노인 술꾼에게 술을 조금씩 더 따라 주었다. 술을 따를 때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했다. 자독이 술 기운에 횡설수설하다가 아예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 시간쯤 지나자, 그가 보여주던 은밀한 침묵이 조금씩 깨

지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방황하던 그의 시선이 멀리 낮게 깔린 데블 리프의 능선에 머물렀다. 파도 위로 선명하게 솟아오른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을 홀리는 듯했다.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굽히더니 내 코트 깃을 움켜쥐고는,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음산한 암시들을 쫓쫓거리며 내뱉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 바로 저기라네. 깊은 바다가 시작되는, 온갖 사악함이 깃든 저 저주받은 곳 말이야. 지옥의 문이지. 어떤 측심줄로도 바닥을 찰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깎아지른 낭떠러지라네. 늙은 오베드 선장이 저지른 짓이야. 남태평양 섬들에서 제게 이로우 게 없는 것까지 알아버린 바로 그 사람 말이야."

"오베드 선장 같은 양반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사탄의 늙은 팔다리 같은 영감탱이! 헤헤, 헤헤! 그 영감이 먼 나라 이야기들을 늘어놓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 사람들은 기독교 예배에 가서 온순하고 겸손하게 자기 짐을 짊어지고 사는데, 다들 멍청한 짓을 한다고 욕을 해댔지. 그러면서 말이야, 인도 제도 사람들처럼 더 나은 신을 모셔야 한다고 했어. 제물을 바치면 그 대가로 고기를 잔뜩 잡아다 주고, 사람들의 기도에도 정말로 응답해 주는 그런 신 말이야."

오베드의 일등 항해사인 맷 엘리엇도 말이 많았다. 다만 그는 사람들이 이교도적인 짓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오타헤이트 동쪽에 있는 어느 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에는 인류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오래된 석조 유적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카롤린 제도의 포나페에 있는 유적들과 비슷했지만, 그곳의 조각들은 이스터 섬

의 거대 석상처럼 생긴 얼굴들이었다. 그 근처에는 작은 화산섬도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도 다른 형태의 조각이 새겨진 유적들이 있었다. 그 유적들은 마치 한때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모두 마모되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끔찍한 괴물들의 형상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게 말이오, 선생. 맏 말로는 저기 근처 원주민들은 잡고 싶은 만큼 물고기를 마음껏 잡았다는군. 게다가 그놈들은 기묘한 금으로 만든 팔찌며 팔 장식, 머리 장식까지 차고 다녔다지. 그 금붙이에는 저 작은 섬의 유적 위에 새겨진 괴물들과 똑같이 생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더군. 물고기 같은 개구리인지, 아니면 개구리 같은 물고기인지 모를 것들 말이야. 그 그림 속 괴물들은 마치 사람처럼 온갖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지. 한데 그놈들이 그 물건들을 다 어디서 얻었는지는 아무도 캐낼 수가 없었어. 바로 옆 섬들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데, 어떻게 그놈들만 물고기가 그렇게 풍족한지 다른 원주민들도 다들 의아해했지. 맏도 궁금해했고, 오베드 선장도 마찬가지였어. 게다가 오베드 선장은 해마다 멀쩡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변에 노인네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눈치챘지. 또 선장 생각에는, 그 원주민들이 아무리 카나카인이라 해도 생김새가 지나치게 기괴해 보인다고 했어."

"그 이교도들에 관한 진실을 알아낸 건 오베드였지. 어떻게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놈들이 몸에 걸치고 다니는 금빛 물건들을 맛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 물건들이 어디서 온 건지, 더 구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면서 말이야. 그러더니 결국 늙은 추장한테서 이야기를 캐냈지. 왈라케아라고 불리던 놈 말이야. 그 노란 악마 같은 영감탱이 말

을 믿어줄 사람은 오베드 말고는 아무도 없었겠지만, 선장님은 사람을 마치 책 읽듯 꿰뚫어 보는 재주가 있었거든. 헤헤, 헤헤! 지금 내가 이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자네도 믿지 않을 것 같군, 젊은이. 하지만 가만히 보니 자네 눈매가 오베드처럼 아주 날카로운 게, 책을 많이 읽은 눈 같긴 하구먼.”

노인의 속삭임은 점점 잦아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 끔찍하고도 진실한 불길함을 느끼며,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비록 그의 이야기가 술에 취해 지어낸 망상에 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있잖아요, 선생. 오베드가 알아낸 게 있는데,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설령 듣는다 해도 믿지 못할 것들이 있답니다. 그 카나키 부족 사람들은 바다 밑에 사는 어떤 신 같은 존재들에게 젊은 남녀를 잔뜩 제물로 바쳤고, 그 대가로 온갖 은총을 받았나 봐요. 그들은 기묘한 유적이 남아 있는 작은 섬에서 그 존재들을 만났는데, 개구리처럼 생긴 괴물들이 그려진 끔찍한 그림들이 바로 그 존재들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인어 이야기가 시작된 것도 다 그런 괴물들 때문일지 모르죠. 그들은 바다 밑바닥에 온갖 도시를 세워놓고 살았는데, 이 섬은 그곳에서 솟아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섬이 갑자기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올 때, 그 석조 건물 안에는 그 존재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카나키 사람들이 그들이 저 밑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고요. 그들은 처음엔 겁에 질렸지만, 곧 진정하고는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를 성사시켰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제물을 좋아했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상 세계의 소식은 끊기고 말았어. 희생자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베드도 그걸 묻는 데 그리 영리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하지만 이교도들에게는 다 괜찮은 일이었어. 워낙 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무엇이든 절박했으니까. 그들은 매년 두 번, 5월 전야와 할로윈 때마다 정해진 수의 젊은이들을 바다 괴물들에게 바쳤어. 아주 규칙적으로 말이야. 직접 깎아 만든 장식품들도 함께 바쳤지. 그 괴물들이 대가로 주기로 약속한 건 엄청난 양의 물고기였어. 바다 사방에서 물고기 떼를 몰아다 주었거든. 가끔은 금빛을 띠는 물건들도 섞여 있었고."

"그 두꺼비같이 생긴 물고기 놈들과 짝짓기하는 일에 대해서라면, 카나키 부족은 한동안 주저했지.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태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 인간과 저 물속 괴물들 사이에 일종의 혈연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모든 생명체는 한때 물속에서 시작되었고, 아주 약간의 변화만 거치면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 괴물들이 카나키 부족에게 말해주길, 만약 피를 섞는다면 처음에는 인간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태어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괴물과 닮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물속으로 들어가 저 아래에 있는 무리들과 합류하게 될 거라고 했지.

그리고 젊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네. 물고기 괴물로 변해 물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놈들은 끔찍한 폭력에 휘말려 죽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네."

"있잖아요, 선생. 오베드 마시가 그 섬사람들을 알게 됐을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그 심해의 존재들 때문에 온몸이 물고기 피로 절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까지 숨어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심하게 변했고, 어떤 이들은 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변하지 못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괴물들이 말했던 그대로 변해갔죠. 태생부터 그 괴물들을 더 닮은 이들은 일찍부터 변해버렸고, 거의 인간에 가까웠던 이들은 가끔 일흔이 넘을 때까지 섬에 머물기도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시험 삼아 물속으로 내려가 보곤 했지만요. 물로 돌아간 사람들은 대개 섬을 꽤 자주 다시 찾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이 자기의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뻘 되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있었죠. 그분들은 한 이백 년 전쯤에 육지를 떠나셨던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 다른 섬 주민들과 카누 전쟁을 벌이다 죽거나, 저 아래 바다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거나, 아니면 바다로 떠나기 전에 뱀에 물리고 전염병이나 급성 질환에 걸려 죽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야. 그저 시간이 흐르면 찾아올 어떤 변화를 기다릴 뿐이었지.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전혀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됐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비하면, 지금 얻은 것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오베드 역시

늙은 왈라케아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더니, 아마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모양이야. 하지만 왈라케아는 물고기의 피가 섞이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 다른 섬의 왕가와 혼인을 이어온 왕족의 혈통이었으니까."

"왈라케아는 그에게 납인지 뭔지로 만든 기묘한 물건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물건을 쓰면 바닷속 어디에 있든 물고기 괴물들이 등지를 틀고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적절한 기도 문 같은 걸 읊으며 그 물건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왈라케아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누구든 찾아보기만 하면 등지를 발견하고 원할 때마다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맏은 이 사업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베드가 그 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선장은 이득을 챙기는 데는 아주 영악했습니다. 금빛을 띠는 그 물건들을 워낙 헐값에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지. 그러다 오베드가 그 금빛 물질을 충분히 모았어. 그래서 화이트의 낡아빠진 제분소에 정제 시설을 차리기 시작한 거야."

"글쎄 말이야, 그게 한 38년도쯤이었지. 내가 일곱 살 때였어. 오베드가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섬 사람들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더라고. 다른 섬 주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를 챘고, 직접 나

서서 일을 처리한 모양이야. 바다 괴물들이 말하기를, 그놈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그 오래된 마법의 표식들이라고 했으니, 아마 그것을 거야. 바다 밑바닥에서 대홍수보다 더 오래된 유적을 품은 섬이 솟아오를 때, 저 카나키 놈들이 대체 무엇을 손에 넣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그놈들은 참으로 독실한 녀석들이었어. 본섬이든 작은 화산섬이든, 무너뜨리기엔 너무 거대한 유적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남겨두지 않았거든."

그 소식은 오베드 마시에게 큰 타격이었다. 평소 그의 주된 수입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스머스 전체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선원 시절에는 선장이 얻는 이익에 비례해 선원들도 몫을 나누어 가졌기에, 선장의 수익이 줄면 마을 전체의 형편도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이 고난을 양 떼처럼 순응하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방직 공장들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오베드는 사람들이 멍청한 양 떼처럼 구는 걸 두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기독교의 천국에나 매달려 기도하는 꼴이라면서 말이야.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이들이 있다고 했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내려주는 신에게 기도하는 이들이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만약 건장한 사내들이 자기 곁을 지켜준다면, 물고기를 넘쳐나게 하고 금도 꽤나 가져다줄 어떤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고 다녔단 말이야."

노인은 여기서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리더니, 이내 침울하고 불안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초조한 듯 어깨 너머를 힐끗 살피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검은 암초를 흘린 듯 응시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기에, 나는 그가 술병을 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인은 병 입구를 활고는 그것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까닥이며 혼잣말로 낮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내뱉는 말 중 단어 하나라도 놓칠세라 몸을 바짝 기울였다. 얼룩진 덩수룩한 수염 사이로 비웃는 듯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 노인은 정말로 말을 내뱉고 있었고, 나는 그 말의 상당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불쌍한 매트... 매트는 언제나 그 일에 반대했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목사님들과 긴 대화도 나누었어.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지. 사람들은 회중교회 목사를 마을에서 쫓아냈고, 감리교사는 떠나버렸어. 침례교 목사였던 리줄브드 배브콕은 그 뒤로 다시는 볼 수 없었지. 여호와의 진노라니... 나는 아주 미친한 존재일 뿐이지만, 들을 건 다 들었고 볼 건 다 봤어. 다곤과 아슈토레트, 벨리알과 바알세불, 황금 송아지와 가나안과 블레셋의 우상들, 그리고 바빌론의 가증스러운 것들까지...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그는 다시 멈춰 섰다. 물기 어린 푸른 눈동자의 빛을 보니, 결국 그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직전인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내가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흔들자, 그는 놀라울 정도로 기민하게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모호한 말들을 몇 마디 더 내뱉었다.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지? 헤헤, 헤헤헤—그럼 이것 좀 말해봐, 젊은 친구. 왜 오베드 선장님이랑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한밤중에 데블 리프까지 노를 저어 나갔는지 말이야. 바람만 제대로 불면 마을 전체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무언가를 노래하면서 말이지. 그것 좀 대답해 보라고, 응? 그리고 왜 오베드는 리프 너머 깊은 바다에 무거운 물건들을 자꾸 던져 넣었는지도 말이야. 거긴 바닥이 절벽처럼 깎여 있어서 소리조차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이라고. 왈라케아가 준 그 기괴하게 생긴 납 덩어리는 또 어떻게 했는지도 말해봐. 어이, 꼬마야?”

물기가 어린 푸른 눈동자는 이제 거의 광기 어린 짐승의 그것처럼 번뜩였고, 지저분한 흰 수염은 전율하듯 곤두섰다. 노인 자독은 아마도 내가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는지, 사악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헤, 헤, 헤, 헤! 이제 좀 알 것 같나 보군, 응?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 배에 있던 망원경을 들고 망루에 올라갔을 때 말이야. 달이 떠오르자마자 저 암초 근처에 뻑뻑하게 들어찼던 형체들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처박히던 그 밤은 또 어땠고. 오베드랑 사람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있었지만, 그 형체들은 저 멀리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해 버린 뒤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체들을 망루 위에서 홀로 지켜봐야 하는 어린애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 응? 헤, 헤, 헤, 헤……."

* * * * *

노인은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나 또한 이름 모를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그가 뒤틀린 발톱 같은 손을 내 어깨에 얹었을 때, 나는 그 떨림이 결코 즐거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리프 너머 오베드 마시의 작은 배에서 무언가 묵직한 게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걸 봤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마을의 젊은 놈 하나가 집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요? 어때요? 하이라ם 길면의 흔적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닉 피어스, 루엘리 웨이트, 아도니람 사우스윅, 그리고 헨리 개리슨까지...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응? 헤, 헤헤..."

"있잖아요, 어르신. 그때가 바로 오베드 마시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세 딸이 전에는 본 적도 없는 금빛 장신구를 걸치고 다니는 걸 보았고, 정제소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다른 이들도 번창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항구에는 물고기 떼가 죽어 나갈 정도로 몰려들었고, 뉴버리포트와 아컴, 그리고 보스턴으로 얼마나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는지 하늘만이 아실 겁니다. 바로 그때, 오베드가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지선 철도가 놓였습니다."

"기억해 두게, 오베드가 그 카나키 섬에서 됐던 것처럼 모든 걸 똑같이 만들려고 작정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섞으려 했다거나, 영생을 얻어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로 변할 새끼들을 키워내려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네. 그는 그저 황금 같은 것들을 원

했을 뿐이고, 그 대가로 무거운 값을 치를 용의도 있었지. 그리고 내 짐작으로는, 그 _다른 것들_도 한동안은 만족했던 것 같더군……."

"이보게, 46년도에 마을 사람들이 제법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좀 했었지. 실종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일요일 예배 때마다 광신도들이 미친 듯이 설교를 해냈고, 그 암초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돌았어. 내가 큐폴라에서 본 걸 모리 선출 위원에게 말해버린 게 화근이었던 것 같네. 어느 날 밤, 오베드의 무리를 따라 암초로 향하던 일행이 있었는데, 나룻배들 사이에서 총성이 들리는 걸 들었거든. 다음 날 오베드와 서른두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 다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대체 무슨 죄목으로 그들을 잡아넣을 수 있을지 의아해했지. 세상에, 누군가 미리 앞을 내다보기라도 했더라면... 그로부터 몇 주 뒤,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에 아무것도 던져지지 않았을 때 말이야……."

자독은 공포와 탈진의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힐끗거렸지만, 한동안 그가 침묵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조수가 바뀌었고,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그를 깨운 듯했다.

"그 끔찍했던 밤을요.... 내가 봤단 말입니다.... 돔 모양의 전망대에 올라가 있었는데... 떼거지로 몰려오더군요... 떼를 지어 몰려왔어요... 암초 전체를 뒤덮고는 항구를 지나 매녹셋 강까지 해엄쳐 올라왔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날 밤 인스머스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놈들이 우리 집 문을 덜컥거리며 두드렸지만, 아버지는 열어주

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모리 선출 위원을 찾아가 뭐라도 해보려고 머스킷 총을 든 채 부엌 창문 밖으로 기어 나가셨죠.... 시체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총소리와 비명이 들려왔어요... 올드 스퀘어와 타운 스퀘어, 그리고 뉴 처치 그린 광장에서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요... 감옥 문은 활짝 열렸고... 포고문이 불고... 반역죄니 뭐니 난리가 났었죠... 사람들이 몰려와 우리 마을 사람 절반이 사라진 걸 보고는 전염병이라 불렀지만... 오베드나 그 괴물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고, 아니면 입을 닥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내 어깨를 짚은 그의 손에 힘이 더욱 들어갔다.

"아침이 되니 모든 게 깨끗이 치워져 있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소.... 오베드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더니,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말하더군. 모임 시간이 되면 다른 이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떤 집들은 손님들을 대접해야 한다고 말ियो. 그들은 예전에 카나키족과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섞이길 원했고, 오베드는 그들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전혀 느끼지 않는 듯했소. 오베드는 완전히 미쳐 있었소. 마치 그 문제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같았던 말ियो.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물고기와 보물을 가져다주었으니,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마땅히 주어야 한다고 말하더군...."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었어. 그저 우리에게 무엇이 이로
운지 안다면, 낯선 이들을 멀리하기만 하면 됐지. 우리 모두는 다곤의
서약을 해야 했고, 나중에는 우리 중 몇몇이 맺은 두 번째, 세 번째 서
약도 있었어. 특별히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는 금 같은 특별한 보상이
주어졌지. 거부해 봤자 소용없었어. 저 밑에는 그런 것들이 수백만은
깔려 있었으니까. 그들은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굳이 지상으로 올라오
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을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
이 움직이게 만든다면,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아주 큰 힘을 보탬 수
도 있었어."

"그들이 원할 때면 충분한 제물과 야만적인 장신구들을 바치고, 마
을에 은신처를 내어주면 그들은 알아서 잘 물러나 주었지. 다곤 비밀교
단의 충실한 신도들은 모두 한 몸이라네. 아이들은 결코 죽지 않고, 한
때 우리 모두가 태어났던 어머니 하이드라와 아버지 다곤에게로 돌아
가게 될 것이야. 이아! 이아! 크툴루 프타건! 프'엔글루이 물글워나프
크툴루 르리에 워가나글 프타건!—"

늙은 자독은 이제 신음하기 시작했다. 눈물은 깊게 파인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수염 속으로 스며들었다.

"신이시여, 내가 열다섯 살 때부터 본 것들을 생각하면…… 메네, 메
네, 테켈, 우파르신! 실종된 사람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그
리고 아킴이나 입스위치 같은 곳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다녀 미친놈 취
급을 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요. 하지만 신이시여, 내가 본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아는 것들 때

문에 진작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다만 내가 오베드 마시로부터 다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맹세를 받아두었기에 보호받을 수 있었을 뿐이지요. 배심원단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의로 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맹세만큼은 받지 않았습시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맹세만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은 남북 전쟁 무렵에 더 심해졌어요. 46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였죠. 적어도 몇몇 아이들은 그랬어요. 나는 겁이 나서 그 끔찍한 밤 이후로는 절대 캐묻지 않았고, 평생 그들 중 하나라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피를 이어받은 자 말이에요. 지금 정제소를 운영하는 바나바스 마시는 오베드 마시의 손자인데, 오베드의 첫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오베드의 장남인 오네시포루스의 아들이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밖으로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런 부류의 여자였어요."

"이제 바나바스는 완전히 변해버렸어. 눈을 감길 수도 없고, 온몸의 형태가 뒤틀려버렸지.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옷을 입고 있다고들 하지만, 머지않아 그도 물속으로 들어갈 거야."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점점 더 집요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맞춰 노인의 기분도 조금씩 변해갔다. 감상에 젖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경계 섞인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노인은 이따금 말을 멈추고는 어깨너머를 살피거나 멀리 보이는 암초 쪽을 불안하게 훑어보았다. 노인이 늘어놓는 이야기가 터무니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음에도, 나는 나도 모르게 그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에 전염되기 시작

했다. 자독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는 마치 더 큰 목소리로 떠들어야만 용기가 생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봐, 어이,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마을에서 사는 기분이 어떠냐고? 모든 게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가는 이런 곳 말이야. 눈을 돌리는 곳마다 판자로 막힌 괴물들이 검은 지하실과 다락방을 기어 다니고, 울어대고, 짖어대고, 꺽충꺽충 뛰어다니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어떠냐고! 어이? 뭐, 손님, 진짜 최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해주고 싶군!”

자독은 이제 정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광기 어린 목소리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빌어먹을, 그 눈으로 그렇게 뻔히 쳐다보지 마쇼! 내가 오베드 마시한테 말했던 말이오, 그놈은 지옥에나 처박혀 있어야 한다고! 헤헤, 헤헤... 지옥에나 있으라고 내가 그랬단 말이오! 날 잡으려 해도 못 잡을 거요. 난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오, 자네, 젊은 친구인가? 글썄, 내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한 적은 없지만, 지금은 말해줘야겠구먼! 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보게, 이 사람아. 이걸 내가 평생 단 한 명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라네……. 그날 밤 이후로는 더 이상 캐묻고 다니지 않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말이야, 그때와 똑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말았다네!"

"진짜 공포가 뭔지 알고 싶다고, 응? 글썄, 바로 이거야. 그 물고기 악마들이 저지른 짓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지를 짓이 문제라고!

저놈들은 자기가 온 곳에서 무언가를 이 마을로 끌어올리고 있어.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그 기세가 좀 수그러들었던 말이지. 워터 가와 메인 가 사이, 강 북쪽의 저 집들은 죄다 저놈들로 가득 차 있어. 악마 놈들과 저놈들이 끌고 온 것들로 말이야. 그리고 저놈들이 준비를 마치면... 내 말은, 정말로 준비를 마치고 나면... 혹시 '쇼고스'라는 걸 들어본 적이라도 있나?..."

“이봐, 내 말 들려? 내가 말하잖아, 그놈들이 뭔지 내가 _안다고— 어느 날 밤에 직접 봤단 말이야, 그때.... 에-아아아아—아! 에-야아아아아아....”

노인의 비명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인간적으로 끔찍해서, 나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바다 너머, 내 뒤편을 응시하는 노인의 눈은 금방이라도 머리 밖으로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다.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마치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뼈만 남은 노인의 손톱이 내 어깨를 괴물처럼 파고들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밀려드는 파도뿐이었고, 멀리 길게 늘어선 파도 줄기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일렁이는 물결 하나가 보였을 뿐이다. 그때 자독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공포로 얼어붙어 있던 그의 얼굴은 어느새 경련하는 눈꺼풀과 중얼거리는 입술이 뒤섞인 혼돈의 상태로 변해 있었다. 이윽고 떨리는 속삭임이 되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당장 꺼져! 당장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놈들이 우릴 봤어—
목숨을 보전하고 싶으면 얼른 도망쳐!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놈들
이 이제 알아챘단 말이야—어서 달려—빨리—이 마을에서 당장 벗어나
나라고!”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허물어져 가는 옛 부두의 석조 구조물을 강타했다. 그 충격에 미친 노인의 속삭임은 다시금 인간의 것이 아닌,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비명으로 변했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내 어깨를 움켜쥐었던 손을 놓아버렸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거리 쪽으로 내달렸고, 폐허가 된 창고 벽을 따라 북쪽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바다 쪽을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워터 스트리트에 다다라 북쪽을 향해 길을 따라 살펴보았으나, 자독 앨런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IV

이 참혹한 사건이 남긴 여운을 차마 말로 다 설명할 길은 없다. 그것은 광기 어린 동시에 애처로웠고, 기괴하면서도 공포스러웠다. 식료품점 소년이 미리 귀땀을 해주긴 했으나,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나를 어찌할 바 모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야기는 유치하기 짝이 없었지만, 노인 자독이 보여준 그 미친 듯한 진지함과 공포는 내 마음 속에 불안을 부채질했다. 그 불안은 마을에 대해 품고 있던 혐오감, 그리고 그곳을 뒤덮은 정체 모를 그림자에 대한 불쾌감과 뒤섞여 점점 커져만 갔다.

시간은 위험할 정도로 늦어지고 있었다.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켰고, 아침행 버스는 8시에 타운 스퀘어를 떠날 예정이었다. 나는 생각을 최대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돌리려 애썼다. 그러면서 지붕이 뺨 뚫린 채 기울어진 집들이 늘어선 텅 빈 거리를 빠르게 걸어갔다. 목적지는 짐을 맡겨둔 호텔이었다.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식료품점 청년이 준 지도를 살피며 가보지 않은 길을 찾던 나는, 마을 광장으로 향하는 경로로 스테이트 거리 대신 마시 거리를 택했다. 폴 거리 모퉁이에 다다르자 은밀하게 속삭이는 무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광장에 도착했을 때, 배회하는 이들 대부분이 길면 하우스의 문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비에서 내 여행 가방을 찾는 동안, 불룩하게 튀어나온 눈동자들이 깜빡임도 없이 기괴한 시선으로 나를 훑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불쾌한 생물들 중 누구도 버스에서 나와 동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8시가 되기 조금 전, 버스가 승객 세 명을 태운 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일찍 도착했다. 인도에 서 있던 험악한 인상의 사내는 운전사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내게 불운이 닥친 모양이었다. 뉴버리포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속도가 아주 좋았는데,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버스가 아침까지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안에는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했고, 인스머스에서 아침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다른 교통수단도 없었다. 사전트는 유감을 표하며 길먼 호텔에서 하룻밤 묵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마 호텔 직원이 숙박비를 좀 깎아 주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난관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 퇴락하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는 마을에 밤이 찾아오는 것이 끔찍이도 두려웠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거기서 만난 뚱한 표정의 기묘한 야간 직원은 꼭대기 층 바로 아래에 있는 428호가 비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방은 넓었지만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었고, 숙박비는 1달러였다.

뉴버리포트의 이 호텔에 대해 들었던 소문이 어떠했든, 나는 일단 숙박 명부에 이름을 적고 1달러를 지불했다. 점원이 내 여행 가방을 가져가게 둔 뒤, 나는 그 투명스럽고 외로운 직원을 따라 계단을 올랐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계단은 세 층이나 이어졌고, 그 사이로 생동감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먼지 쌓인 복도들이 나타났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뒤편에 위치한 음침한 방이었다. 창문은 두 개였고 가구는 저렴하고 초라했다. 방 안에서는 낮고 버려진 벽돌 건물들에 둘러싸인 칙칙한 안뜰이 내려다보였으며, 그 너머로는 서쪽으로 길게 늘어진 낡은 지붕들과 습지 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복도 끝에는 욕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습은 참으로 낙담스러울 정도로 퇴락한 유물 같았다. 오래된 대리석 세면대와 양철 욕조, 희미한 전등이 전부였고, 배관 시설 주변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나무 판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황혼이 짙어지자 나는 철제 프레임이 달린 저렴한 침대 위에 달린 희미한 전등 하나를 켰다. 그리고 어떻게든 글자를 읽어보려 애썼다. 이 고대의, 저주받은 그림자가 드리운 마을의 기괴함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건전한 곳에 쏟아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인 주정뱅이에게 들은 그 미친 듯한 이야기는 결코 즐거운 꿈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그 노인의 광기 어린, 물기 어린 눈동자의 잔상이 내 상상력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밀어내야만 했다.

또 하나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내 방 문에 빗장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있었던 모양인데, 최근에 떼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이 퇴락한 건물에 있는 다른 수많은 물건이 그렇듯, 빗장 역시 고장이 났던 것이리라. 초조해진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옷장 위에서 빗장 하나를 발견했다. 자국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전에 문에 달려 있던 것과 크기가 같은 듯했다.

나는 극도의 긴장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열쇠고리에 달린 드라이버 겸용 다목적 도구를 이용해 옷장의 빗장을 떼어 문으로 옮기는 작업에 몰두했다. 빗장은 빈자리에 꼭 맞게 들어갔다. 잠자리에 들 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옆방으로 이어지는 양옆의 문에는 빗장이 충분히 달려 있었기에, 나는 곧장 그 문들을 모두 잠갔다.

옷을 갈아입지는 않았다. 잠이 올 때까지 책을 읽다가, 코트와 갓, 그리고 신발만 벗은 채 그대로 누워 있기로 마음먹었다. 여행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나중에 어둠 속에서 깨어나더라도 시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문득 내 생각을 가만히 되짚어 보던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차마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두려운 무언가를 말이다.

마침내 졸음과는 다른 종류의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새로 달아놓은 현관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뒤, 코트와 칼라, 신발까지 그대로 착용한 채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어둠 속에서 서는 밤의 아주 미세한 소음조차 크게 증폭되어 들렸고, 두 배로 불쾌한 생각들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불을 꺼버린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다시 일어나 불을 켤 기운조차 없었다.

그렇게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 흘렀을까. 계단과 복도에서 다시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든 불안을 악의적으로 실현하려는 듯한, 부드러운면서도 지독하게 분명한

그 소리 말이다.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며 망설이는 듯한 동작으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건드리고 있었다.

막연한 예감에 불과했던 위협이 눈앞의 실재로 돌변하자, 나는 형용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에 정면으로 얻맞은 듯한 강렬한 충격이었다. 서투른 움직임이 그저 단순한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오직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뿐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침입자가 다음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리며,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얼마간 조심스럽게 문을 흔들던 소리가 멎었다. 곧이어 누군가 마스터키로 북쪽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내 방과 연결된 문 손잡이를 누군가 살며시 돌려보았다. 당연히 빗장이 걸려 있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침입자가 방을 떠나며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다시금 부드러운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내 남쪽 방에 누군가 들어가는 소리였다. 침입자는 다시 한번 빗장이 걸린 연결 문을 은밀히 돌려보았고, 이내 멀어지는 삐걱거림이 들렸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복도를 따라가더니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침입자가 내 방 문들이 빗장으로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단 시도를 멈춘 모양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가능한 한 빨리, 그 호텔에서 살아 나가는 것. 그것도 정문 계단이나 로비가 아닌 다른 통로를 찾아서 말이다!

나는 몸을 살며시 일으켜 손전등으로 벽의 스위치를 비추었다. 신속히, 여행 가방도 없이 도망치기 위해 챙겨서 주머니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려고 침대 머리맡의 전등을 켜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전기가 끊긴 것이었다. 나는 손전등 빛에 의지해 주머니를 채운 뒤, 모자를 쓰고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창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였다.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 이쪽 면에는 비상 탈출구가 없었다. 창밖을 보니 자갈이 깔린 안뜰까지는 깎아지른 듯한 3층 높이의 낭떠러지가 바로 아래에 있었다. 다만 좌우를 살펴보니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호텔과 맞닿아 있었다. 그 건물들의 경사진 지붕은 4층인 내 방 높이에서 뛰어내릴 만한 적당한 거리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 건물들 중 하나로 가려면 내 방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두 칸 떨어진 방까지는 가야 했다. 나는 그곳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즉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우선 나는 소리를 최대한 죽이려 애쓰며 서랍장을 문 쪽으로 밀어 넣어 현관문을 보강했다. 그리고 나서 식료품점 소년의 지도에서 마을을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경로가 남쪽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방 남쪽에 있는 연결된 문을 먼저 살폈다. 그 문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빗장을 걸고 다른 잠금장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 그 문은 억지로 부수고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나는 그곳을 경로에서 제외하고, 대신 옆방에서 나중에 들이닥칠지 모를 공격을 막기 위해 침대 프레임을 그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놓았다.

북쪽 문은 나를 등지고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였다. 시험 삼아 확인해 보니 반대편에서 잠겨 있거나 빗장이 걸려 있었지만, 나는 이 문이 유일한 탈출로임을 직감했다. 만약 페인 가(Street)에 있는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지상까지 무사히 내려갈 수만 있다면, 마당을 가로질러 인접한 건물이나 맞은편 건물들을 타고 워싱턴 가나 베이츠 가로 달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시 페인 가로 나와 남쪽을 돌아 워싱턴 가로 돌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어떻게든 워싱턴 가에 도달해 마을 광장 근처를 신속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페인 가는 피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곳의 소방서가 밤새 열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북쪽 문을 언제쯤 공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움직일 수 있을지 망설이며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때 발 밑에서 들려오던 모호한 소음이 멎더니, 계단에서 더 무겁고 새로운 삐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 위의 작은 창을 통해 빛이 흔들리며 비쳤고, 복도의 바닥판은 육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말을 하는 듯한 웅얼거림이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내 방문 너머에서 단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동안 나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다. 주변을 감도는 역겨운 생선 비린내가 갑자기, 그리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짙게 몰려왔다.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갈수록 집요해졌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한 나는 북쪽으로 연결된 문에 걸린 빗장을 뽑았다. 그리고 문을 부수

어 열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나는 그 소리가 내가 문을 부수는 소리를 가려주기만을 바랐다. 마침내 시도할 때가 되어, 나는 충격이나 통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왼쪽 어깨로 얇은 판벽을 향해 몇 번이고 거칠게 몸을 던졌다.

마침내 연결된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워낙 컸던 탓에 밖의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자마자 밖에서 들려오던 노크 소리는 거친 난타로 변했다. 동시에 내 양옆에 있는 방들의 복도 문에서는 열쇠 꾸러미가 부딪히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새로 열린 연결 통로를 통해 급히 달려가, 북쪽 복도 문이 잠기기 전에 간신히 빗장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문을 잠그는 그 순간에도, 세 번째 방의 복도 문을 누군가 마스터키로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방은 내가 창문을 통해 아래층 지붕으로 내려가려 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순간 절망이 엄습했다. 창문조차 없는 방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에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정신이 나간 듯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다음 연결된 문을 향해 다가갔다. 나는 그저 문을 통과하려는 일념 하나로, 눈앞이 아득한 상태에서 무작정 문을 밀어젖혔다.

순전히 운이 좋았다. 내 앞에 놓인 연결문이 잠겨 있기는커녕 살짝 열려 있었으니,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문을 통과했다. 그러고는 안쪽으로 열리고 있는 복도 문에 오른쪽 무릎과 어깨를 밀착했다. 내가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문을 열려던 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고, 그 틈을 타 나는 이전 문에서 했던 것처럼 빗장을 능숙하게 걸어 잠글 수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다른 두 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소리가 찾아 들었다. 대신 침대 프레임으로 막아두었던 연결문 쪽에서 무언가 뒤섞여 부딪히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습격자들의 주력은 분명 남쪽 방으로 진입해 측면 공격을 준비하며 모여들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북쪽 옆방에서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렸다. 더 가까운 곳에서 위험이 들이닥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북쪽으로 통하는 연결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복도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잠금장치를 확인하며 생각에 잠길 여유 따위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열린 연결 문과 그 맞은편에 있는 문을 급히 닫고 빗장을 지르는 것뿐이었다. 나는 침대 하나를 밀어 문을 막고, 서랍장 하나를 반대편 문에 갖다 대었으며, 세면대를 복도 문 앞으로 옮겨 놓았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페인 스트리트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갈 때까지, 이런 임시방편의 방어벽에 의지해 버티는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순간에도 나를 지배한 공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방어벽의 취약함과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내가 몸서리치며 떨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추격자들이 간헐적으로 내뿜는 기괴한 혈떡임과 끔찍거리리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듯한 짓는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구를 밀어내고 창문을 향해 급히 달려가던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 끔찍하게 바스락거리며 내 방 북쪽 방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남쪽에서 들려오던 거친 충돌음도 멎었다. 분명 적들은 이제 나에게 곧장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저 약한 문 하나로 화력을 집중하려는 속셈이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아래층 건물의 마룻대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내려가야 할 바닥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될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북쪽 연결문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커졌다. 얇은 판벽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분명 습격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가져와 성문 부수는 망치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침대 틀은 여전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다. 덕분에 탈출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다.

창문을 열자 황동 고리로 봉에 매달린 두꺼운 벨벳 커튼이 양옆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또한 창밖에는 덧창을 고정하는 커다란 돌출형 걸쇠도 있었다. 위험한 높이에서 뛰어내리지 않고도 탈출할 방법이 보였다. 나는 커튼을 거칠게 잡아당겨 봉째로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황동 고리 두 개를 창밖 덧창 걸쇠에 재빨리 걸고 커튼을 밖으로 던졌다. 묵직한 커튼 자락은 맞닿은 지붕까지 충분히 내려왔고, 고리와 걸쇠가 내 몸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창밖으로 기어 나가 급조한 밧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그렇게 나는 기괴하고 공포로 가득 찬 길먼 하우스의 공간을 영원히 뒤로 하고 떠났다.

나는 가파른 지붕 위 험거운 슬레이트 위로 무사히 내려앉았다. 미끄러지지 않고 입을 벌린 채 검게 뚫려 있는 천창까지 올라가는 데도 성공했다. 내부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런 인상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시계를 급히 확인하니 새벽 2시였다. 나는 곧장 손전등이 비추는 계단을 향해 움직였다. 계단은 삐걱거렸지만 비교적 튼튼해 보였다. 나는 헛간 같은 2층 공간을 지나 1층까지 단숨에 달려 내려갔다. 사방은 완전히 적막했고, 오직 내 발소리만이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다.

복도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반대편 끝까지 다다랐을 때, 나는 거리로 통하는 문이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꽉 끼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건물을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마당을 향해 더듬더듬 길을 찾아 나섰으나, 문턱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길먼 하우스의 열린 문틈 사이로 정체 모를 형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일렁였고, 분명 영어가 아닌 기괴한 울음소리가 낮게 오가며 꺾꺾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몸을 웅크린 채 비틀거리며 걷는 그 걸음 걸이는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웠다.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것은, 그들 중 한 명의 차림새가 기묘했다는 점이다. 그 인물은 분명히 눈에 띄는 긴 티아라를 쓰고 있었는데, 그 디자인이 너무나도 익숙하여 나를 전율케 했다.

나는 다시 거리 쪽을 향해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복도 옆에 있는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으나, 그곳은 창틀조차 없는 창문에 덧문만 굳게 닫힌 빈 방이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더듬거리던 나는 덧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는 곧바로 창밖으로 기어 나갔고, 잠시 후 열린 틈을 원래 상태로 조심스럽게 닫았다.

나는 무너져가는 집들 곁으로 몸을 바짝 붙인 채, 발소리를 죽이며 빠르게 걸었다. 베이츠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입을 벌린 듯 험한 현관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 사이 두 형체가 비틀거리며 내 앞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곧 다시 길을 나선 나는 엘리엇가와 워싱턴가가 사우스 교차로에서 비스듬히 만나는 탁 트인 광장으로 향했다. 이 광장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식료품점 청년이 준 지도상으로는 매우 위험해 보였다. 달빛이 그곳을 가감 없이 비출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곳을 피하려 애써봐야 소용없었다. 다른 길을 택했다가는 멀리 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칫 노출될 위험만 커지고 시간만 지체될 터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당당하고 거침없이 그곳을 가로지르는 것뿐이었다. 나는 인스머스 사람 특유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최대한 흉내 내며, 그곳에 아무도, 적어도 나를 쫓는 자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며 발을 내디뎠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추격망을 조직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조차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마을 안에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돌았으나, 내가 길먼 하우스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은 아직 퍼지지 않은 듯했다. 예상했던 대로 탁 트인 광장에는 달빛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없었고, 누군가 나

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주위를 살피던 나는 나도 모르게 잠시 걸음을 늦추고 길 끝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듯한 달빛을 머금은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방파제 너머 먼 바다에는 테블 리프의 어둡고 희미한 윤곽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예고도 없이 멀리 떨어진 암초 위로 번쩍이는 빛줄기들이 보였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경계심과 반쯤 최면에 걸린 듯한 매혹이 나를 그 자리에 붙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내 뒤편 북동쪽에서 거대하게 솟아오른 길면 하우스의 높은 돔에서도 비슷한 빛들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빛의 간격은 조금 달랐지만, 그것은 분명 암초에서 보낸 신호에 응답하는 신호였다.

나는 이제 폐허가 된 폭발 광장을 끼고 왼쪽으로 몸을 굽혀 돌아갔다. 시선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있었다. 바다는 유령 같은 여름 달빛을 받아 번뜩이고 있었고, 나는 그 위로 이름 모를, 설명할 수 없는 신호들이 기괴하게 번쩍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그 무엇보다도 끔찍한 충격이 나를 덮친 것은. 그 공포는 내게 남은 마지막 자제력마저 송두리째 앗아갔다. 나는 정신없이 남쪽을 향해 달아났다. 입을 벌린 채 검게 일렁이는 문들과, 비린내 나는 시선으로 나를 뺨히 응시하는 창문들이 늘어선 그 버려진 악몽의 거리를 지나쳐 미친 듯이 달렸다. 가까이서 보니, 암초와 해안 사이의 달빛 어린 바다는 결코 비어 있지 않았다. 그곳은 마을을 향해 헤엄쳐 들어오는, 꿈틀거리는 형체들의 거대한 무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블록도 채 가기 전에 미친 듯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왼쪽에서 무언가 조직적으로 추격해 오는 듯한 소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발소리와 함께 목구멍을 굽는 듯한 기괴한 소리들이 들렸고, 덜컥거리는 엔진 소리는 페더럴 거리를 따라 남쪽으로 썩썩거리며 멀어져 갔다. 순식간에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만약 남쪽 방향의 대로가 막혀 있다면, 인스머스를 빠져나갈 다른 탈출구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입을 벌린 듯 뺨 뚫린 문틈 사이로 몸을 숨겼다. 추격자들이 평행한 옆 거리를 따라 내려오기 전에, 달빛이 비치는 탁 트인 광장을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득 로울리로 향하는 폐철도가 떠올랐다. 강 협곡 끝자락에 위치한 허물어져 가는 역에서부터 북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간 그 철길은, 잡초가 무성한 채 자갈과 흙더미로 단단히 다져진 상태 그대로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떠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버려진 은신처의 홀 안으로 몸을 들이민 나는, 손전등을 비춰 식료품점 점원의 지도를 다시 한번 살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래된 철도역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도를 보니 가장 안전한 경로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앞쪽으로 가서 밥슨가에 이른 뒤, 라파예트가로 서쪽으로 향한다. 이때 내가 이미 건너온 곳과 비슷한 탁 트인 공간을 가로지르지 않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야 한다. 그러고 나서 라파예트, 베이츠, 애덤스, 뱅크스 가를 따라 북쪽과 서쪽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뱅크스 가는 강 협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창밖으로 보았던 그 폐허가 된 낡은 역에 도착할

수 있다. 밥슨가까지 앞쪽으로 가기로 한 이유는, 이전에 지나온 탁 트인 공간을 다시 건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우스가처럼 넓은 교차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밥슨가로 접어들기 위해 길 오른쪽으로 건너갔다.

밥슨가에서는 내려앉고 울퉁불퉁한 건물들에 최대한 몸을 바짝 붙여 이동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일순간 커질 때마다, 나는 문틈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두 번이나 발을 멈춰야 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앞쪽의 공터는 넓고 황량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다행히 내가 가야 할 길은 그곳을 가로지르지 않아도 되었다. 두 번째로 멈춰 섰을 때, 정체 모를 희미한 소리들이 새로운 방향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러자 자동차 한 대가 공터를 가로질러 엘리엇가를 향해 빠르게 달려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잤아들었던 비린내가 갑자기 치솟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그 악취 속에서 지켜보았다. 투박하고 웅크린 형체들이 무리를 지어 같은 방향으로 성큼성큼, 혹은 비틀거리며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길은 엘리엇 가에서 이어지는 도로이니, 분명 입스위치 도로를 지키고 있는 무리임이 틀림없었다. 언뜻 스친 형체 중 둘은 부풀어 오른 로브를 입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달빛 아래 하얗게 번뜩이는 뾰족한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 형체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기이해서 내 몸에 전율이 일 정도였다. 그 생물은 마치 거의 '깽충깽충' 뛰다시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일행의 마지막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라파예트 가의 모퉁이를 돌아 빠르게 달렸고, 혹시라도 일행 중 뒤쳐진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오고 있을까 봐 엘리엇 가를 서둘러 가로질렀다. 멀리 타운 스퀘어 쪽에서 개굴거리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가장 두려운 일은 달빛이 비치는 넓은 사우스 가를 다시 건너는 것이었다. 그곳은 바다 쪽이 훤히 내다보이는 길이었기에, 나는 이 시련을 견뎌낼 용기를 쥐어짜야만 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고, 엘리엇 가에서 뒤쳐져 오던 이들이라면 두 지점 중 어느 한 곳에서든 틀림없이 나를 발견하고 말 터였다. 결국 나는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렸다. 뛰는 속도를 늦추고, 평범한 인스머스 주민들처럼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로 길을 건너기로 말이다.

길을 채 다 건너기도 전이었다. 북쪽 워싱턴가에서부터 무언가 중얼거리는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내가 달빛에 비친 바다를 처음으로 보고 불안에 휩싸였던 그 넓고 트인 광장에 다다랐을 때, 나는 한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짐승처럼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웅크린 채 걷는 모습은 개처럼 비인간적이라 나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어떤 남자는 긴 팔이 땅에 닿을 정도로 유인원처럼 움직였고, 예복을 입고 티아라를 쓴 또 다른 형체는 거의 꺾충꺾충 뛰다시피 나아갔다. 나는 그 무리가 길먼의 안뜰에서 보았던, 즉 나를 가장 가까이서 추적하고 있는 바로 그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들 중 몇몇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간신히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걷는 척하며 태연함을 유지했다. 그들이 나를 보았는지 아닌지는 지금까지도 알 길이 없다. 만약 보았다 하더라도 내 속임수가 통했을 것이다. 그들은 경로를 바꾸지 않은 채 달빛이 내리쬐는 광장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사이 그들은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혐오스럽고 거친 방언으로 꺽꺽거리며 재잘거리고 있었다.

다시금 어둠이 내려앉은 길 위에서,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정적 속에서 멍하니 응시하는 듯한, 기울어지고 납아빠진 집들을 지나쳐 나아갔다. 서쪽 보도로 건너간 나는 가장 가까운 모퉁이를 돌아 베이츠 가로 들어섰고, 남쪽 건물들에 바짝 붙어 걸었다. 마침내 오래된 아케이드 양식의 역사가 보였다. 아니, 역사의 잔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나는 역사의 저편 끝에서 시작되는 선로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철로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대체로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고, 침묵도 절반 이상은 썩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길 위를 걷거나 뛰는 것은 무척 고된 일이었으나,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렸고 결과적으로 꽤 괜찮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선로를 따라 한참을 가자 협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길이 이어졌고, 마침내 아찔한 높이로 심연을 가로지르는 긴 지붕형 교량에 다다랐다. 이 다리의 상태가 내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다면 다리를 이용할 것이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시 거리로 나가 헤매며 가장 가까운 온전한 도로 교량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달빛 아래, 헛간처럼 길게 늘어진 낡은 다리가 유령 같은 빛을 내뿜으며 번뜩였다. 침묵은 안쪽으로 적어도 몇 피트 정도는 안전해 보였다. 안으로 발을 들이며 손전등을 비추자, 날갯짓하며 스쳐 지나가는 박쥐 떼가 나를 덮쳐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침묵이 끊겨 위험한 틈이 나타났다. 순간 발길을 돌려야 하나 겁이 났지만, 결국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고 다행히 건너갈 수 있었다.

그 기괴한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다시 달빛을 마주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오래된 철길은 리버 스트리트를 경사지게 가로지르고 있었고, 곧이어 인스머스의 그 역겨운 생선 비린내가 점점 열리는 한적한 시골 풍경 속으로 굽어 들어갔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가시덤불이 앞길을 가로막으며 내 옷을 잔인하게 찢어 놓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덩불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을 숨겨줄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롤리 도로에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의 상당 부분이 흰히 들여다보일 터였다.

습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낮게 솟은 풀밭 둑을 따라 난 외길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다 지대가 조금 높은 섬 같은 곳이 나타났는데, 그곳을 지나는 길목에는 덩불과 가시덤굴이 뒤엉킨 얇은 개착지가 있었다. 나는 이 부분적인 은폐물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니, 이 지점에서는 롤리 가도가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좁은 길로 들어서기 직전, 나는 뒤를 돌아보았으나 쫓아오는 자는 보이지 않았다. 쇠락해가는 인스머스의 오래된 침탑과 지붕들은 마법

같은 황금빛 달빛 아래 아름답고도 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 아주 먼 옛날 이곳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했다. 그러다 마을에서 내륙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평온함과 거리가 먼 무언가가 내 눈길을 붙잡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다.

내가 본 것, 혹은 보았다고 착각한 것은 저 멀리 남쪽에서 일렁이며 움직이는 듯한 불길한 형상이었다. 그 움직임을 보고 나는 아주 거대한 무리가 평탄한 입스위치 도로를 따라 도시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세부적인 모습까지는 분간할 수 없었으나, 움직이는 그 행렬의 모습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온갖 불쾌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해안가 근처, 수백 년 된 낡은 미로 같은 건물들 사이에 숨어 산다는 인스머스의 아주 기괴한 부류들이 떠올랐다. 내가 목격했던 그 이름 모를 수영객들도 생각났다. 지금까지 눈에 띈 무리들과 아마도 다른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무리까지 합쳐보면, 인스머스처럼 인구가 적은 마을치고는 나를 쫓는 자들의 수가 기묘할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누구인가? 왜 이곳에 나타난 것인가? 만약 그토록 거대한 무리가 입스위치 도로를 살살이 뒤흔치고 있다면, 다른 도로를 지키는 순찰대 역시 그만큼 증원된 상태란 말인가?

덤불이 우거진 길로 들어선 나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그 저주스러운 비린내가 다시금 코를 찔러왔다. 소리

도 들려왔다. 무언가 거대하고 엄청난 것이 통째로 퍼덕거리거나 타닥 타닥 발을 구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웬지 모르게 가장 혐오스러운 광경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했다.

악취와 소음이 동시에 거세졌다. 나는 몸을 떨며 걸음을 멈췄다. 그나마 몸을 가려주는 이 절벽의 틈새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이곳이 로울리 길이 오래된 철로에 아주 가까이 붙었다가, 서쪽으로 건너가 갈라지는 지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길을 따라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지나가고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몸을 낮추고 숨죽여 기다려야만 했다.

나는 모래 섞인 이 틈새의 덤불 속에 몸을 웅크렸다. 불과 백 야드도 채 되지 않는 바로 앞 철로를 수색자들이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주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 있으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색자들은 내가 보일지 몰라도, 사악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를 발견할 수는 없을 터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마주 보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달빛이 쏟아지는 그 좁은 공간을 통해 그것들이 밀려들 것을 생각하면, 그곳이 돌이킬 수 없는 오염물로 뒤덮일 것만 같아 기괴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것들은 아마도 인스머스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최악일 것이며,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일 터였다.

악취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진해졌고, 소음은 점점 커져갔다. 개구리 울음소리, 짐승의 울부짖음, 그리고 짙는 소리가 뒤섞인 야수 같은 소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말소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로 나를 쫓아오는 자들의 목소리가 저런 것이란 말인가? 무언가 질척거리며 움직이거나 다다닥 발을 구르는 소리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 소리를 내는 타락한 괴물들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소리들이 서쪽으로 멀어질 때까지 눈을 감고 버티기로 했다.

이제 무리는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쉼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공기는 오염된 듯 불쾌했고, 이질적인 리듬으로 땅을 딛는 발소리에 지면이 거의 흔들릴 정도였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나는 눈꺼풀을 억지로 내리누르기 위해 모든 의지력을 쏟아부었다.

그다음에 벌어진 일이 끔찍한 실재였는지, 아니면 그저 악몽 같은 환각이었는지조차 나는 아직 말하기를 주저한다. 내가 필사적으로 호소한 끝에 정부가 취한 후속 조치들은 그 일이 괴물 같은 진실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오래되고, 유명이 출몰하며,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을의 준최면적인 마법에 걸려 환각이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날 밤, 조롱하듯 떠 있는 노란 달빛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반드시 말해야겠다. 황량한 철도 절개지, 그 거친 가시덤불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였다. 내 눈앞에서 롤리 도로를 따라 출렁이며 꺾충꺾충 뛰어 내려가던 그것들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눈을 감

고 있겠다는 나의 결심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아니,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짐승처럼 짖어대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내 곁을 지나가는데, 불과 백 야드도 안 되는 거리에서 어떻게 눈을 감고 버틸 수 있겠는가.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만한 곳이 있을 터였다. 절개된 지면이 평평하게 펼쳐지고 도로가 철로를 가로지르는 구간이라면 말이다. 나는 비죽거리는 노란 달이 어떤 공포를 드러낼지, 더는 참지 못하고 확인하고자 말았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내게 남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끝이었다. 정신적 평온은 산산조각 났고, 자연의 온전함과 인간 정신의 건전함에 대한 믿음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행성이 정말로 저런 존재들을 낳았던 말인가? 지금까지 인간이 그저 열병 같은 환상이나 희미한 전설 속에서만 접해왔던 것들을, 인간의 눈이 실재하는 육신으로서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나는 보았다. 끝없이 밀려드는 그들의 행렬을. 그것들은 꿈속의 기괴하고 악의적인 춤사위처럼, 환상적인 악몽의 사라반드를 추며 창백한 달빛 아래 비인간적인 기세로 몰려들었다. 그것들은 몸을 파닥이고, 경충경충 뛰며, 개굴거리고, 울부짖었다. 그중 일부는 이름 모를 백금빛 금속으로 만든 높은 티아라를 쓰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기묘한 예복을 걸치고 있었다. 맨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존재는 기분 나쁘게 굵은 검은 코트에 줄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라고 부를

만한 형체 없는 덩어리 위에는 남자의 펠트 모자가 위태롭게 얹혀 있었다.

그들의 주된 색깔은 회록색이었으나, 배 쪽은 하얗다. 몸 전체는 대체로 번들거리고 미끈거렸지만, 등줄기를 따라 돌아난 능선은 비늘로 덮여 있었다. 형체는 어렴풋이 인간을 닮아 있었으나, 머리는 물고기의 그것이었다. 그 머리에는 결코 감기지 않는 거대한 눈알이 툭 붙겨져 나와 있었다. 목 옆쪽에는 아가미가 꿈틀거렸고, 길쭉한 앞발에는 물갈퀴가 달려 있었다. 그들은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네 발로 기기도 하며 불규칙하게 쾅충거렸다. 사지가 기껏해야 네 개뿐이라는 사실이 내심 다행스러울 정도였다. 그들이 내뿜는 개굴거리는 듯하면서도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는 분명 명확한 언어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는 멍한 눈빛으로는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온갖 어두운 감정들이 서려 있었다.

그 괴물들이 아무리 흥측했을지라도 내게 전혀 낯선 존재는 아니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뉴버리포트에서 마주했던 그 사악한 티아라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지 않은가. 그것들은 이름 모를 문양 속에 새겨져 있던, 살아 움직이는 끔찍하고 불경스러운 물고기 개구리들이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나는 검은 교회의 지하에서 티아라를 쓴 채 꿈추처럼 굽어 있던 그 사제가 무엇을 그토록 공포스럽게 떠올리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치 끝도 없는 무리가 몰려드는 것만 같았다. 내가 찰나의 순간에 목격한 것은 분명 그

전체 중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을 것이다. 곧이어 자비로운 기절이 찾아와 모든 시야를 가려버렸다. 내 생애 처음으로 겪는 실신이었다.

덤불이 무성한 철도 절개지에서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던 나를 깨운 것은 부드럽게 내리는 낫비였다. 비틀거리며 앞쪽 도로로 나갔지만, 갓 젖은 진흙 위에는 그 어떤 발자국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남동쪽으로는 인스머스의 무너진 지붕들과 쓰러져 가는 첨탑들이 회색빛으로 어렴풋이 솟아 있었다. 그러나 황량한 소금 습지 주변 어디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정오가 지났음을 알려주었다.

내가 겪은 일들이 정말 사실인지 내 마음속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나는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스머스를 반드시 벗어나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지치고 쇠약해진 몸을 움직여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기력은 없었고 배는 고팠으며, 공포와 혼란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흐르자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로울리로 이어지는 진흙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기 전 마을에 도착한 나는 식사를 하고 갈아입을 옷도 마련했다.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아컴으로 향했고, 다음 날 그곳에서 정부 관리들을 만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스턴에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이 대화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결과는 이제 대중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들려줄 이야기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어쩌면 나를 잠식해 오는 것은 광기일지도 모른다. 하지

만 어쩌면 더 거대한 공포가, 혹은 더 경이로운 무언가가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미스카토닉 대학교 박물관에 있다는 그 기묘한 장신구를 감히 찾아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아침에 머무는 동안 오랫동안 구하고 싶었던 족보 자료들을 수집하며 시간을 보냈다. 비록 대충 급히 모은 조잡한 자료들이긴 했으나, 나중에 시간을 내어 정리하고 체계화한다면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터였다. 그곳 역사 협회의 큐레이터인 E. 래덤 피보디 씨는 나를 매우 정중하게 도와주었다. 내가 아컴 출신의 엘리자 오른의 손자라고 말하자, 그는 이례적일 만큼 큰 관심을 보였다. 엘리자 오른은 1867년에 태어나 17세의 나이에 오하이오 출신의 제임스 윌리엄슨과 결혼한 인물이었다.

마치 나의 외삼촌 중 한 분이 아주 오래전, 나와 비슷한 목적을 품고 그곳을 방문했던 것 같았다. 또한 할머니의 가문이 그 지역에서 꽤나 호기심 어린 화젯거리였던 모양이다. 피보디 씨의 말에 따르면, 남북전쟁 직후 할머니의 아버지인 벤자민 오른이 결혼했을 당시 마을에서 꽤나 떠들썩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신부의 가계가 유독 수수께끼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 신부는 뉴햄프셔 출신의 고아인 마시 가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에섹스 카운티의 마시 일가와는 사촌 관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한 후견인이 신부와 프랑스인 가정교사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보스턴의 한 은행에 자금을 맡겨 두었으나, 그 후견인의 이름

은 아컴 사람들이 알 만한 이름이 아니었다. 결국 그 후견인은 자취를 감추었고, 시간이 흐르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정교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그 프랑스 여인은 매우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녀가 입을 조금만 더 열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 말하곤 했다.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은, 기록에 남은 그 젊은 여인의 부모—에녹과 리디아(메서브) 마시—가 뉴햄프셔의 기존 가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아마도 이름난 마시 가문의 사생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눈매가 분명 마시 가문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의문은 그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외동딸인 나의 할머니가 태어나던 해였다.

나는 마시라는 이름과 관련된 불쾌한 인상들을 이미 품고 있었기에, 그 이름이 내 가계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반갑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 또한 마시 가문의 눈매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피보다 씨의 말 역시 유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료들이 분명 가치 있게 쓰일 것임을 알았기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기록이 잘 남아 있는 오른 가문에 관해 방대한 양의 메모를 남기고 관련 서적 목록을 정리해 두었다.

나는 보스턴을 떠나 곧장 톨레도로 향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모미에에 머물며 겪었던 끔찍한 일들로부터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전념했다. 9월에는 오벌린 대학의 마지막 학년으로 복학했다. 이듬해 6월

까지는 학업과 건전한 활동들에 몰두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내가 제출한 간청과 증거들로 시작된 정부의 조사 작업 때문에 가끔 관계자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 외에는 지나간 공포를 떠올릴 일이 거의 없었다.

인스머스에서 겪은 일이 있는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7월 중순 무렵, 나는 일주일간 클리블랜드에 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 보관된 여러 기록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문의 유물들을 살펴보며 내가 새로 알아낸 족보 자료들을 대조해 보았다. 내가 어떤 식으로 가계도를 그려낼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작업이 딱히 즐겁지는 않았다. 윌리엄슨 가문의 분위기는 언제나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집에는 늘 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 외조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을 결코 권하지 않으셨다. 비록 외할아버지가 톨레도로 찾아오실 때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셨지만 말이다. 아컴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내게 기이하고도 거의 공포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할머니가 사라졌을 때, 나는 슬프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내 나이 여덟 살이었는데, 사람들은 할머니가 장남인 더글러스 삼촌이 자살한 뒤 슬픔을 이기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다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삼촌은 뉴잉글랜드 여행을 다녀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여행은 아컴 역사 협회 사람들이 삼촌을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여행이었다.

그 삼촌은 그녀와 닮아 있었고, 나 역시 그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응시하는 특유의 표정은,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어머니와 월터 삼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닮았다. 비록 불쌍한 어린 사촌 로렌스는—월터의 아들인 그는—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캔턴의 요양원으로 영구히 격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거의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지만 말이다. 로렌스를 못 본 지도 벌써 4년이 흘렀으나, 삼촌은 언젠가 그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걱정이 2년 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홀로 된 아들 월터, 이 두 사람이 이제 클리블랜드 저택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지나간 옛 시절의 기억이 짙은 안개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곳이 싫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연구를 끝내고 떠나려 애썼다. 할아버지는 윌리엄슨의 기록과 전승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다. 다만 오른(Orne) 가문의 자료를 위해서는 월터 삼촌에게 의지해야 했다. 삼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서류를 내게 내주었다. 그 안에는 각종 메모와 편지, 신문 스크랩은 물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보와 사진, 그리고 세밀화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오른(Orne) 가문 쪽의 편지들과 사진들을 훑어보던 중, 나는 내 혈통에 대한 일종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 할머니와 더글러스 삼촌은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세상

을 떠난 지 수년이 흐른 지금, 사진 속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내 마음에는 이전보다 훨씬 짙은 혐오감과 이질감이 밀려들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아주 작은 의구심조차 부정하며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했음에도, 무의식 속에서는 끔찍한 종류의 '비교'가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 들었다. 분명한 사실은, 사진 속 얼굴들이 풍기는 특유의 표정이 예전에는 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만약 내놓고 생각이라도 하게 된다면, 견잡을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법한 무언가였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충격은 시내의 대여금고에서 삼촌이 오른 가문의 보석들을 보여주었을 때 찾아왔다. 그중 몇몇 물건은 섬세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다웠다. 그러나 삼촌이 꺼내 보이기조차 망설였던, 정체 모를 증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이하고 오래된 장신구 상자가 하나 있었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그 보석들은 기괴하다 못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삼촌은 물건들을 천천히, 그리고 마지못해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게 당부했다. 문양들이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이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이다. 그 안에는 팔찌 두 개와 티아라, 그리고 일종의 가슴 장식품이 들어 있었다. 가슴 장식품에는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과하게 화려한 형상들이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첫 번째 장신구인 티아라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이라도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까지

예상했을지는 의문이다. 나 역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장신구들이 결국 어떤 모습일지, 나는 이미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1년 전 가시덤불이 무성한 철도 절개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저 소리 없이 정신을 잃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끊임없는 우울과 불안이 뒤섞인 악몽이 되었다. 무엇이 끔찍한 진실이고 무엇이 미친 망상인지 이제는 나조차 분간할 수 없다. 나의 증조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시 가문의 혈통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아컴에 살았다. 그런데 옛날 자독이 말하지 않았던가. 괴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베드 마시의 딸이 어떤 속임수를 써서 아컴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이다. 그 늙은 술꾼이 내 눈이 오베드 선장과 닮았다고 중얼거렸던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 아컴의 박물관 관장 역시 내게 마시 가문 특유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베드 마시가 나의 고조할아버지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의 고조할머니는 누구, 아니,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 모든 게 그저 미친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 백금색 장신구들은 내 증조모의 아버지가 인스머스 선원에게서 쉽게 사 온 것일 수도 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다. 할머니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숙부의 그 부릅뜬 눈빛 또한, 내 상상력을 어둡게 물들인 인스머스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순전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숙부는 뉴잉글랜드에서 조상의 흔적을 쫓고 돌아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을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펼쳐내려 애썼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버지는 내가 보험 회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는 가능한 한 깊숙이 일상의 반복 속으로 나를 파묻었다. 하지만 1930년에서 1931년 사이의 겨울, 꿈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드물고 은밀하게 찾아왔으나, 몇 주가 지나면서 꿈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생생하게 나타났다.

내 눈앞에는 거대한 물의 공간이 펼쳐졌고, 나는 그 속을 헤매는 듯했다. 거대한 침몰한 주랑(柱廊) 사이를 지나고, 해초가 뒤엉킨 거대한 벽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곳을 거닐었다. 그 곁에는 기괴한 물고기들이 동료처럼 함께했다. 그러다 점차 '다른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형체들은 이름 모를 공포로 나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꿈속에서만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인간이 아닌 그들의 차림새를 하고, 그들의 물길을 걸으며, 바다 밑바닥에 있는 사악한 신전에서 괴이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기억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이 있었으나, 설령 매일 아침 떠오르는 기억들을 전부 기록한다 해도 그것은 나를 미치광이 혹은 천재로 낙인찍기에 충분할 터였다. 어떤 끔찍한 영향력이 나를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건전하고 온전한 삶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름 붙일 수 없는 암흑과 이질적인 심연 속으로 나를 끌어내리려는 듯한 기분 말이다. 그 과정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건강과 외양은 끊임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나는 하던 일을 포기한 채 병약한 환자로서 정적인 은둔 생활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체 모를 신경질적인 질환이

나를 움켜쥐고 있었으며, 때로는 눈을 감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끼며 거울 속의 나를 살피기 시작했다.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의 파괴를 지켜보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그 이면에 훨씬 더 미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아버지 또한 그것을 눈치챈 듯했다. 아버지는 나를 기묘하고도 거의 겁에 질린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 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설마 내가 할머니와 더글러스 숙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나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여러 층의 테라스로 이루어진 인공의 궁전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기괴한 부식병에 걸린 듯한 산호 정원과 기형적으로 길게 뻗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반겨주었는데, 그 온기는 어쩌면 조롱 섞인 것일지도 몰랐다. 할머니는 변해 있었다. 물속에 적응한 자들이 그러하듯, 할머니 또한 달라져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대신, 죽은 아들이 알아냈던 어떤 장소로 가서 그곳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아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든 채 거부했던, 그러나 아들에게도 예정되어 있었던 경이로운 영역으로 말이다. 그곳은 나의 영역이기도 했다. 나는 결코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지상에 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존재해 온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삽화: "어느 날 밤, 끔찍한 꿈속에서 나는 바다 밑을 헤매다 두 존재의 고대신을 만났다. 그들은 기괴하고 부식된 산호 정원에 둘러싸인, 인공이 감도는 다층 구조의 궁전 안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할머니였던 존재와도 만났다. 프트야-리(Pth'thya-l'yi)는 8만 년 동안 야하늘레이에서 살아왔으며, 오베드 마시가 죽은 뒤 그곳으로 돌아갔다. 지상의 인간들이 바다를 향해 죽음을 쏘아 올렸을 때도 야하늘레이는 파괴되지 않았다. 상처를 입었을 뿐, 멸망하지는 않았다. 잊힌 옛 존재(Old Ones)들의 고대 마법이 때때로 그들을 저지할 수는 있어도, 깊은 것들을 결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겠지만, 언젠가 그들이 기억을 되찾는 날, 위대한 크툴루가 갈구하는 공물을 바치기 위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다음번의 도시는 인스머스보다 더 거대할 것이다. 그들은 세력을 넓히려 계획했고, 자신들을 도울 존재들을 길러냈으나, 이제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지상인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대가로 나는 참회를 해야 하겠지만, 그 짐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쇼고스(shoggoth)를 목격한 꿈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광란 속에서 깨어났다. 그날 아침, 거울 속의 나는 분명히 '인스머스 외모'를 갖게 되어 있었다.

지금껏 나는 더글러스 삼촌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다. 자동 권총을 한 자루 샀고 거의 실행에 옮길 뻔하기도 했으나, 어떤 꿈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공포가 주는 팽팽한 긴장감은 점차 찾아들고 있다. 이제 나는 미지의 심해를 두려워하는 대신, 기묘하게 이끌리는 기분을

느낀다. 잠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깨어날 때는 공포가 아니라 일종의 고양감이 밀려온다. 대부분의 이들이 그랬듯, 나 또한 완전한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 기다려야 한다면, 아버지는 불쌍한 내 어린 사촌을 가두어 둔 것처럼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릴 테니까. 저 밑바닥에는 전례 없는 경이롭고 거대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곧 그것들을 찾아 떠날 것이다. _Iā-R'lyeh! Cthulhu fhtagn! Iā! Iā!_ 아니, 나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자살하게 만들 수는 없다!

나는 사촌을 저 칸톤의 광인 수용소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경이로운 그림자가 드리운 인스머스로 떠날 것이다. 우리는 바다 위에 불길하게 솟아 있는 저 암초를 향해 헤엄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검은 심연을 지나 수많은 기둥이 늘어선 거대한 야하늘레이로 잠수할 것이다. 깊은 것들의 은신처인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경이와 영광 속에 머물 것이다.